

혁신과 분권을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중경

VOL.29 Winter 2019



풍경

VOL.29 Winter 2019



CONTENTS

Cover Story

눈덮인 지자체원의 전경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마저 포근해진다.

LOGODI + Life

- 04 역사문화탐방 인터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방문한 항일독립 유적지
- 06 교육생 봉사활동 수기
나눔과 봉사는 사랑이다
- 08 지자체원 교육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 10 지자체원 서포터즈의 2019년
우리도 지자체원 식구입니다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박재민

발행처 지방자체인재개발원
(전라북도 원주군 이서면 반교로 150)
전화 0639075100

편집위원 최명규(기획부장) 송준호(기획협력과장)
기획총괄 안대현(기획팀장)
기획/취재 김예지, 손정우
디자인/사진 컨티뉴



따뜻한 정이 있는 인재원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LOGODI+ Story

- 12 한눈에 보는 하반기 뉴스**
자치인재원 하반기 주요행사 소개
- 14 정부 국정목표 우수 실천 6개 지자체**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현장 속으로
- 16 이 교육, 주목하자**
체인지메이커과정 시범운영

LOGODI+ Lounge

- 18 쉼이 있는 여행**
전라북도 대표 겨울관광지
- 20 안전 상식**
겨울철 전기안전 지켜주세요
- 22 책속의 책**
자치인재원이 사랑한 책

www.logodi.go.kr

<자치인재원 풍경>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소식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돌아온 중국 역사문화탐방

제39기 고급리더과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5.27~5.31.(5일간)

항일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방문했다.

조형호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그 발자취를 살펴보자.

Interview 제39기 고급리더과정 조형호 대표

Q. 애국지사들의 항일독립운동 발자취를 직접 본 소감은?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원들의 숙소가 있던 영경방, 윤봉길 의사의 역사적 의거 현장인 홍구공원(루쉰공원), 상해임시정부 마당로 청사를 비롯한 가흥, 항주, 남경의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투사들의 거주지 등 유적지를 돌아보았어요. 낯선 이국땅 여기저기를 옮겨가며 임시정부를 지켰던 애국지사들이 겪었을 설움과 감동이 동시에 교차함을 느꼈어요.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 밝은 미래를 담보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해요. 특히, 항일독립운동 사적지는 우리 선열들의 미래에 대한 과거의 외침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울이라는 점에서 더욱 되새겨야 하는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Q. 방문했던 곳 중 추천하고 싶은 장소와 추천하는 이유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 일제 수뇌부를 처단했던 중국 상해 홍구공원을 추천하고 싶어요. 25살 꽂다운 나이에 독립운동에 기여할 큰 뜻을 품고 홍구공원에서 의거를 거행한 윤봉길 의사의 업적을 소개한 한글 비석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윤봉길의사 생애사적전시관’을 갔어요.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윤봉길 의사의 생애를 소개해주고, 당시 실제 영상자료와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이국 땅, 의거지 현장에서 보는 윤봉길 의사의 모습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거사를 통해 일제에는 경각심을, 세계에는 우리의 존재감을, 겨레에는 단합심을 심어주어 일제의 기세에 꺾여 침체되어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로를 개척하게 되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요.

Q.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1919년 3·1운동으로 한국이 독립국임을 세계에 선언한 이후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이었어요. 국회와 같은 임시의정원을 조직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황제의 대한제국인 아닌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선포한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많은 희생을 통해서라도 주체적으로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우리 선현들의 뜻이 담겨 있어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은 분단의 시대와 주변 국가들이 대치한 지금의 현실에서 주권 수호의 의의와 민족사의 정통성은 물론이고, 통일의 선제적 우선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하는 민족사적 정신적 자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Q. 교육과정 중 역사문화탐방이 가지는 의의는?

중국 내 항일 유적지 역사문화탐방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시기에 독립을 위해 참으로 심한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국사를 배워왔고 또한 자치인재원 강의를 통해 독립운동을 안다고 자부했는데 현지에서 바라본 항일 유적지의 열악함에 심한 자책감이 들었어요. 언제 들어다칠지 모르는 일제의 총칼에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임했던 독립 운동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를 지탱해 주는 정신적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Q. 마지막으로, 장기교육을 마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자기변화훈련에서 서로 어색해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어요. 30여 년간 공직자의 길을 되돌아보며 얼마 남지 않은 앞날에 대한 전환점이 되고 리더의 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어요. 우수한 동료들과 유명한 강사진 및 다양한 직무수업 등으로 구성된 교육 속에서 꿈을 그리며 자기다움을 찾고자 했는데 지나치게 백화점식으로 접근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아요. 혁신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만족해야겠어요. 업무에 복귀해서도 1년간의 배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나눔과 봉사는 사랑이다”

|최혜영 제26기 여성리더과정|



4차 산업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부산시를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망망대해의 푸르른 바다를 기대하며 우리는 먼저 봉사활동을 위해 기장군에 있는 장애인 한울타리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고 공기도 청명하여 입소자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시설 원장님과 직원 분들, 그리고 장애인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곳에는 중증장애인과 주간보호 장애인 30여명이 한울타리 안의 가족처럼 정겹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

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고, 우리는 진지한 태도로 교육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두 팀으로 나누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과는 산책하면서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상태인 중증장애인은 직접 돌봄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호자가 없으며 나이

“ 사랑은 그 자체로
머무를 수 없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다.
사랑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행동이 바로 봉사이다.”

-마더 테레사-

도 30대 이상이었으나 정신연령이 5~6세일 정도로 자기표현이 많이 서툴렀습니다. 우리도 이런 환경이 낯설었지만 장애인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밀하기, 동요 부르기, 동화책 읽기, 장난감 놀이 등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생 한 명은 소양교육 과정에서 배운 판소리로 사랑가를 불러 장애인의 심금을 울렸으며 함께한 교육생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장애인은 말을 못하지만 자기만의 표현으로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하였으며 또 다른 장애인도 수줍게 박수를 치며 입가에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미소 띤 얼굴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였습니다.

마칠 시간이 되어 다음에 오길 약속하며 장애인 손을 잡았는데 내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장애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함께한 시간이 짧았지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장애인의 돌봄 체험은 아쉬움과 또 다른 여운을 남겼습니다.

26기 여성리더 교육생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을 직접 실천할 수 있어서 많은 보람을 느꼈으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끝 자락에서 지역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곳을 한번쯤 뒤돌아보고 작은 나눔을 실천한다면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육과정 중에 봉사의 참 의미를 느낄 수 있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1 자원봉사 교육
2 산책 중 꽃풀찌 만들어 주는 모습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 추유미 제4기 글로벌리더과정 |

소중한 배움의 기회

기나긴 공무원 생활에서 10개월의 장기교육을 갈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그 꿈같은 10개월간의 교육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슬슬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급해지기 시작한다. 필름을 되돌려 보니 교육 첫 입교하면서 남원에서 있었던 자기변화 훈련부터 그때 가졌던 마음가짐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이제 내 뒤를 이어 교육을 들어올 사람들 을 위해 어떤 경험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자세한 서술을 해야만 하는 의무감이 든다. 내가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 성장했던 것에 대해 나만 알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록도 하지 않는다면 대단한

실례가 될 정도로 이번 장기 교육은 교육을 가기 전과 교육을 받은 후 나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시간 이었다. 원어민 강사의 지도 아래 회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법 등 우리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몸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 미국 가기 전 요리실습 등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잘 짜져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에게 강의를 했던 강사님들은 모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나올 정도로 저명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이 교육이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그분들 강의를 듣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선 내가 참여한 교육은 글로벌리더과정인데, 교육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며 가슴 졸였던 순간들, 인터뷰를 마치고 합격통보를 받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10개월간 몰입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내게 부여된 것은 내 인생의 엄청난 축복이었다.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 서울에서 인터뷰를 했던 것들을 비롯해서 이 모든 과정이 너무도 유익했다. 무엇보다도 미국 현지에 가서 실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5주간의 현지 교육은 영어를 구사하는 데 필요한 것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기간은 영어를 다듬고 자신감을 북돋고 글로벌리더로서의 알아야 할 것을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깨워 준 교육

우리는 비단 영어뿐 아니라 예술, 경제, 세계변화 및 글로벌리더로서 갖추고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유능한 전문가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도 있고 기존에 알고 있던 것에 추가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였다. 상반기에 우리가 만난 강사님들이 60여 명에 달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영어 외에도 다양한 교양과정을 배움으로써 공무원 생활하면서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통감했을 뿐 아니라 새로 터득한 지식을 우리 지자체에서 업무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감이 넘쳤다. 무엇보다도 내가 받고 있는 교육의 가장 큰 효과는 이 교육이 끝이 아니라 계속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최고의 교육 속에 변화된 내 모습

결론적으로 교육 오기 전과 교육을 받으면서 내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들,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적용해야 할 것들로 벌써 머릿속이 꽉 찼을 정도이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낡은 습관에 사로 잡혀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부가적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의실을 처음 본 순간 너무도 모던하고 깔끔한데다가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진, 드럼, 헬스, 골프,

대금 등 다양한 교양과목을 운영하는 것도 좋았고 교육생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리기라도 하듯 모든 시설이 청결하고 교육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느껴질 정도다. 수준 있고 유능한 강사님들을 모시기 위한 운영진들의 열정을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현직에 복귀한다면 이곳에서 터득한 각종 지식을 활용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게 업무에 대처할 수 있을 자신감도 생겼다. 팀별 정책연수를 통해 터득한 외국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팀별로 추진했던 항공예약 및 기관 방문 계획 등은 자율적으로 연수를 추진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아울러, 이 교육과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앞으로 평생 10개월간 습득한 것을 활용하여 영어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해본다.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교육에 대해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도 자치인재원 식구랍니다!

|글 이정희 제4기자치인재원 서포터즈|

- 1 제4기 서포터즈 발대식
- 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정 유튜브 홍보
- 3 국민연금공단 특강 블로그 홍보
- 4 2019 LOGODI 글로벌포럼 유튜브 홍보
- 5 2019 자치단체장 비전포럼 블로그 홍보
- 6 2019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인스타 홍보
- 7 공공기관(국가기록원) 현장 방문
- 8 공무원 면접관 양성과정 참여·홍보
- 9 공직선배와의 대화

자치인재원의 또 다른 얼굴들!

'제4기 자치인재원 서포터즈'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올해 4월 19일에 서포터즈로 선정되어 자치인재원의 교육과정 및 행사에도 직접 참여하고 각종 소식을 전달하는 등 홍보담당 주무관님과 똘똘 뭉쳐 홍보를 해왔습니다. 일만 했나구요? 아닙니다!

이번 제4기 서포터즈의 목표이자 방향은 '자·자·자!(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하고, 자주 홍보하자)'입니다. 때문에 '자·자·자'를 실천하면서 자치인재원 홍보업무뿐만 아니라 공직문화에 대해 간접 체험도 해보고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는 등 대학교 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치인재원의 교육은 살아있다

전국 지방공무원들을 교육한다는 자치인재원을 잘 알려면 교육과정과 강의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서포터즈들이 모여 자치인재원 교육에 처음 참여한 것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정(5월)'이었습니다. 새 정부 3년차 핵심 국정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 가치'가 중시되는 요즘 인구절벽 위기와 동시에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정책을 수행할 공무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이 진행되는 3일 동안 전국 공무원 분들과 함께 강의도 듣고 현장학습도 가는 등 같은 마음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교육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에 아주 뜻깊고 알찬 시간을 보낸 것



1

2

3

드로시 2019. 3. 21. 2:19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Open Campus
국민이 주인인
국민다운 연금
Dorothy

국내외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비로 도로시입니다.

같습니다. 이 후에도 우리역사 바로알기 과정, 인문학으로 배우는 리더십 과정, 윤종인 차관님의 정부혁신 특강부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극지연구소장님, 정정운 감독님 등의 강연에 이르기까지 쉽게 접할 수 없는 분들의 유익한 강의들과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며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자치인재원

자치인재원에서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들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장님들과 지방의원들이 모이는 '자치단체장 비전포럼'과 '지방의회 아카데미',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여서 경연을 펼치는 'HRD 콘테스트'와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등의 전국단위 행사를 넘어 'LOGODI 글로벌 포럼'이라는 국제행사에 이르기까지 전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비쁠 것 같은 자치인재원이 여러 나라에 행정한류를 전파하는 일도 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론으로만 내용이 다뤄질 것 같은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논의와 더불어 실제 실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루고 성과들을 공유한다는 것에서 대한민국 전국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자치인재원의 위상까지도 상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 참여하신 전국 시군구청장님들 뿐만 아니라 'LOGODI 글로벌 포럼' 때 라오스, 몽골, 세네갈, 폐루 등 13개국의 각 교육훈련기관장들과 행정안전부 진영장관님, 세종시

LOGODI Global Forum 2019

자속가능개발목표(SDGs) 역할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기량과 과제

Goals and Ways for Developing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Implemen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기간 | 2019. 4. 17(일) ~ 19(화)
장소 | 경상북도 청년문화센터

Date | April 17-19, 2019
Place | Gyeongsangbuk-do Youth Culture Center

제4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서포터즈

조광현

4



5



6



7



8

9

의회의장님까지 TV에서나 볼 수 있는 인물들이 눈앞에서 자유롭게 회의하고 만담도 나누는 장면들을 통해 자치인재원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포터즈들도 현장에서 리포터처럼 영상도 직접 촬영하면서 소중한 장면에 대한 생생한 홍보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치인재원 서포터즈로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들을 추구하는 요즘, 취업준비생들은 학력과 전공을 불문하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많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무원이 어떤 직업인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포터즈들은 ‘공무원 면접관 양성과정’에 모의면접 대상자로 참여해서 ‘공무원채용을 위한 면접은 이런 내용을 다루고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다면 이런 분위기에서 면접을 보겠구나.’라는 것도 몸소 느낄 수 있고, ‘공직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실제 공무원 분들과의 공무원으로서의 경험과 생활을 공유하고, ‘공공기관 현장방문(국가 기록원 등)’을 통해 그들이 일하는 현장을 더 깊숙이 들어가 몸소 느끼는 기회를 통해 그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 한걸음 더 나아가다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학교에 대한 생활과 추억과 성적만이 제 유일한 인생 경력이었고, 앞으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아가며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은데 어디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 생각과 고민들만 늘어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4기 자치인재원 서포터즈를 하게 되었고 올해 자치인재원 서포터즈로서의 활동은 제가 암담하게만 생각하던 그 고민되는 넓은 범위를 좁혀 가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활동임에도 너무나 많은 정과 관심, 격려를 주신 담당 주무관님과 좋은 직원 분들, 서포터즈 친구들을 봄이라도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자치인재원을 더 다양하게 홍보함과 동시에 많은 추억과 경험을 쌓으려 합니다. 사회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기 전 ‘자치인재원 서포터즈’ 활동은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든든한 원동력이자 든든한 자산입니다. 좋은 경험의 기회를 준 자치인재원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에도 자치인재원 서포터즈로서 자치인재원의 가족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4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서포터즈

+

구성 : 전북지역 대학생(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들로 구성된
자치인재원 홍보단(15명)

임기 : '19. 4. 19. ~ '20. 4. 17.

자치인재원 간추린 NEWS

지난 7월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을 시작으로,
읍면동장 워크숍, 최근의 한중세미나까지....
하반기 자치인재원의 크고 작은 이슈들을 모아봤다.

7월



7.10.

자치단체장 비전포럼 개최

전국 70여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인 가운데,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이 열렸다. 정부혁신, 자치분권 등의 특강을 통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단체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8.26.~8.27.

제37회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 개최

17개 시·도 교육훈련기관장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HRD 콘테스트'가 열렸다. 강의경연, HRD 골든벨 등을 통해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9월



9.18.

읍면동장과 함께하는 포용과 혁신의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 실시

자치인재원은 전국 읍면동장 270여명을 대상으로 재정분권, 혁신 등 정책방향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자체 실천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9월



7.7~7.26/8.25~9.7/9.21~10.5/11.4~11.8.

외국공무원 교육 운영

자치인재원은 7월 팔레스타인 기자재 관리과정, 8월 탄자니아 지방 행정역량강화과정, 9월 키르기스스탄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과정, 11월 베트남 현지방문교육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사제도, 경제발전, 정부혁신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전파했다.

9월

9.19.~9.20.

지방의회 아카데미 운영

전국 지방의원 90여명이 참석하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제·개정 특강 등을 통해 지역 의정활동 전문성을 더하고, 지방자치 실현과 사회혁신의 주체로서 마음가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10.23.~10.25/11.20.~11.22.

혁신적 포용국가 가치 확산 사책교육 운영

자치인재원은 10월 혁신능력 배양과 미래대비 과정, 11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과정 운영을 통해 포용국가의 비전 및 분야별 정책방향, 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10월

9.30.~10.25/11.18.~12.13.

1·2기 지방세무직 9급 신규자과정 운영

자치인재원은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과 지방세무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무직 9급 신규자과정'을 두 차례 진행했다. 공직가치, 직무가치, 국정과제 교육을 통해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기회가 되었다.

11월

11.21.~11.24.

제13회 한중세미나 개최

자치인재원과 중국 청화대 계속교육학원의 13번째 한중세미나가 열렸다. '디지털 경제시대와 정부혁신'이라는 주제로 섹션별 발표와 토론을 이어 가며 양국 정부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역상생 7대과제실적> 2019년 1~3분기(1월~9월말)



(구내식당 내 로컬푸드 활용) 전체 식자재(공산품 제외) 중 전북식자재 사용 비율: **69%** (약 175백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전리북도 우수상품' 전시·판매액: **68백만원** 명절맞이 로컬푸드 장터 개최 (설, 추석): **97개업체 참여, 78백만원 매출**



(지역업체 우선계약)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지역업체와 계약비율: **'19년 계약금액의 81%**



(지역 우수시례 체험·실습 활성화)

지역 내 지원 활용 현장학습 추진: **45회 / 2,591명**

(소외계층 후원 및 나눔활동)

교育생 시설방문 및 봉사활동: **58개소, 2,924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개방)

강의실, 테니스장 등 개방 / 직거래장터, 열린미술관 개방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자치인재원 오픈캠퍼스 운영,

지역상생발전협의회 장소제공 등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현장 속으로!

‘2019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수상작 6편을 소개합니다.



일시/장소 : 2019.11.13.(수) 13:30 / 자치인재원
대상 : 국정목표 우수 실천 지자체 6개
내용 : 국정과제 우수사례 발굴 및 전국 확산·공유

Interview 경기도 파주시 운정3동 신계숙 팀장(최우수상 수상 지자체)



Q. 수상한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면?

운정3동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발령받은 달 자살사건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현장 출장 때마다 방문가정의
냉장고에는 좋은 식품들이 없어서
건강식품도 지원하고 마을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뭐가 있을까 고민했어요.

고민 끝에 따뜻한 두부를 이웃 간에 나누면 정도 생기고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돌봄 대상자들이 상호 두부배달을 하고, 마이너스 두부장사, 공동체 교육 등 공동체 실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공동체, 생명존중 등의 교육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고, 단순한 두부배달이 아닌 이웃을 돌보는 소통의 매개체라는 점을 강조했죠.

Q. 지역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 이 사업이 지역공동체에 끼친 긍정적 영향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는 마을주민들의 의식전환이라고 생각해요. 첫 두부를 배달하던 날을 잊지 못해요. 인사도 없던 이웃들이 두부로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두부라는 공통지수로 음식도 만들어 먹고 체험도 했어요.
두 번째는 마을리더가 있고, 공동체 교육, 이웃 간 관계형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두부사려 똑!똑!똑!’ 시행 전에는

경찰차나 구급차가 마을에 왔다가도 무관심했는데, 시행 후에는 경찰차나 구급차가 왔다간 집을 이웃이 저희 주민센터에 알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웃 간 관심이 늘어난 증거죠.

Q. 업무 추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렵게 마을리더를 선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마을리더와 마을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두부봉사대장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죠. 마을주민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마을리더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어요. 또한, 지역농산물인 장단콩두부를 활용한 고독사·자살예방사업이 생소하여 팀원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일도 어려웠어요.

Q.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의 추진사업 사례가 타 지역에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청했는데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너무나도 기뻐요. 예산 없이 지역주민들의 협업만으로도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 같아 좋아요. 예산 없이 추진 하려면 공무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주민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열정있는 공무원이 많아졌으면 해요. 앞으로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관’의 역할보다 ‘주민’ 스스로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화된 공동체 교육을 통해 사업을 정착화하는 일이 과제로 남은 것 같아요.

최우수상



경기도 파주시 - 행정안전부장관상

지역농산물 파주장단콩두부를 이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자살사고 예방 “두부사려 뜯!뚝!뚝!”(포용사회)

- 지역특산물인 장단콩두부를 이용하여 복지 취약계층 돌봄 대상자 간 상호 두부배달을 통한 안부확인, 정서적 지지, 복지지원
- 이웃 간 관계 형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독사자살건수 감소 등 주민주도형 인적안전망 구축

우수상



제주 서귀포시 - 행정안전부장관상

『시민만족! 행정만족!』 생활 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 혁신(포용사회)

- 재활용동옹센터 설립, 쓰레기처리시스템 개발, 생활쓰레기를 줄겁게 버리는 시민의식 고취 등을 통한 청소행정 혁신
- 빈병보증금 무제한 환불제, 소형폐가전 및 폐식용유 무상배출제, 캔-페트병 자동수거 보상제 등 국내·외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례

우수상



서울시 영등포구 - 행정안전부장관상

『영등포1번가』 50년 갈등의 영등포역 앞, 상생거리로 변한 비결(국민주권)

- 영등포신문고(청원), 탁트인 소통실(민원), 찾아가는 1번가(현장)를 아우르는 주민참여 소통플랫폼 영등포1번가 구축
- 일상의 주민의견도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함께 만든 변화를 통해 공감과 상생을 이끌어 나가는 소통혁신

장려상



장려상



서울시 마포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

마포특화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국민성장)

- 맞춤형 관광특화 콘텐츠 개발·운영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 관광객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 관광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로컬활동가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장려상



부산시 북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

사람과 시간을 잇는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분권발전)

- 역사·문화 지원,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구포역세권의 도시쇠퇴 현상 극복, 원도심권 활성화, 지속성장 가능한 변화 추구
- 인구 유입을 위한 기능이음사업, 자원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장소이음사업, 기능이음과 장소이음을 통해 도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람이음사업 추진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변화를 만드는 공무원 육성

체인지 메이커 과정 시범 운영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완주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인지메이커 과정」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이 과정은 자치단체의 문제 또는 변화가 필요한 과제를 스스로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발전과 공무원들의 역량개발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형·실습형 교수기법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상호학습, 확산을 통해 문제해결 플랫폼을 만들고자 운영되었다.

먼저, 1일차에는 ‘공감 ⇒ 문제정의 ⇒ 대안탐색 ⇒ 최적 대안 선택 ⇒ 실행’의 단계별 문제해결 기법을 학습했다.

특강을 통해 마음공략의 기술인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기법별 사례를 보고 이해관계자를 분석하는 연습도 했다.

2일차에는 교육용 사례의 배경자료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단계에 대한 모의과제 실습을 진행했다. 문제를 파악하는 동시에 대안탐색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연습도 실시했다.

3일차는 완주군 현안담당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완주군 현안문제를 직접 교육과정에 적용해 해결해보는 심화 교육도 진행했다.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 방법을 알게 되었다.’ ‘관행적으로 수행 하던 업무처리 방식을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과정은 현업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 종료 후에도 온라인 피드백을 실시하고(12.3~12.18), 이를 바탕으로 동일 교육생이 다시 모여 현장적용 과정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 과정(12.19.)을 갖는 등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1 문제해결 기법 특강
- 2 이해관계자 분석 연습



○ 목표역량



주민과 함께하는 Empathy	변화를 선도하는 Problem Definition	행정을 실천하는 Designing Solution	주민이 신뢰하는 Service Identity (미의 본질)
주민에 대한 짐심 어린 이해와 공감으로 표면적 상황은 물론 숨은 생각과 가치까지 알아냄	사후 대처에 앞서 문제 명확화 및 이해관계자 파악에 적극적으로 임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발굴하 고 변화를 선도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도출하고, 실험/ 검증을 통해 정책의 성공 확률을 높임	공무원으로서 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신뢰받는 주민의 조력자로서 책임행정을 실천

○ 교육과정 커리큘럼

	Day 1	Day 2	Day 3	Follow-up
문제해결기법	마음 공략의 기술, 공감	문제해결기법 종합실습	Service Identity	과제별 전개과정 복기 (시사점 도출)
	공감 인터뷰	종합실습	Case Preview	발표 및 상호 피드백
	이해관계자 분석		문제 재정의 및 이해 관계자 분석	실천계획 수립 Follow - up 안내 과정 정리
	문제 명확화	종합실습	발표 및 상호 피드백	현업 실천결과정리 (After Action Review)
	Ideation		Ideation 및 실행계획수립	결과 발표 및 전문가 피드백
			발표 및 상호 피드백	실천계획 보완 및 과정 종합정리
			과정 정리	



추울수록 더 즐겁다! 전라북도 이색 휴양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다짐하는 12월.
여행으로 소중한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하기 좋은
매력적인 겨울 여행지를 소개한다.



눈꽃 핀 겨울왕국, 지리산남원 바래봉 눈꽃축제·썰매장

지금 떠나지 않으면 즐길 수 없다! 설렘 가득 은빛 설원이 펼쳐진 남원으로 떠나보자. 지리산 허브밸리와 바래봉 일원에서 눈꽃축제가 펼쳐진다. 이곳에는 남녀노소에게 인기 최고인 눈썰매장과 얼음썰매장, 신나게 뛰어놀며 눈싸움을 할 수 있는 눈동산, 찍는 사진마다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겨울산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바래봉 눈꽃등 반 등이 준비될 예정이다. 또한 축제장에 빠질 수 없는 멀리 장터에서 겨울철 별미를 맛보는 것도 잊지 말자.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허브와 눈꽃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겨울왕국 속으로 흠푸른 취해보자.

📍 주소 | 전북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길 214

☎ 문의 | 063-635-0301





과거에서 즐기는 온돌체험, 정읍 송참봉 조선동네

정읍에서 조금 특별한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송참봉 조선동네’로 불리는 이곳은 조선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옮겨진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집도 생활용품과 가재도구 등 모두 옛것 그대로 남아있다. 이곳에서는 전통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민속놀이체험과 전통혼례체험, 농촌교육체험을 즐길 수 있다. 겨울철 휴양지로 이곳이 제격인 이유. 따뜻하고 편안한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온돌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책으로만 봤던 옛 생활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맛있는 전라도 음식도 맛볼 수 있어 온 가족이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송참봉 조선동네에서 편안히 머물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보자.

📍 주소 | 전북 정읍시 이평면 영원로 1290-118

☎ 문의 | 063-532-0054 [홈페이지](http://folkvillage.co.kr) | http://folkvillag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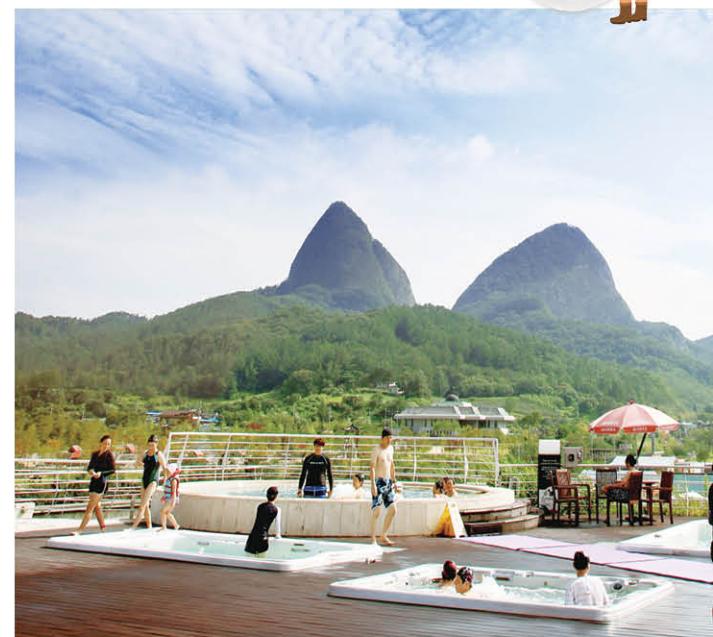


홍삼으로 즐기는 스파, 진안홍삼스파

추운 겨울을 조금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 마이산에 소복이 쌓인 설경을 바라보며 홍삼스파를 즐기자. 진안홍삼스파는 진안의 특산품인 홍삼을 재료로 만든 한방 스파와 음양오행 따라 즐기는 아쿠아, 명상, 마인드 테라피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심신을 달래줄 릴렉스 프로그램과 건강한 웰빙 식사, 숙박까지 모두 한곳에서 즐길 수 있다. 건강을 테마로 한 스파답게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한국관광공사 ‘헬리스관광 25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온종일 머물러도 더 있고 싶은 곳. 뜨끈뜨끈한 진안홍삼스파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쌓여있던 피로가 짹~ 풀리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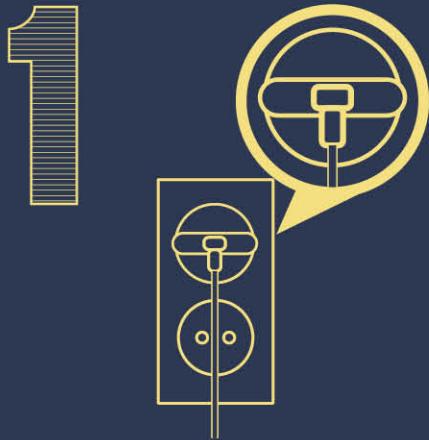
📍 주소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길 16-10

☎ 문의 | 063-433-0396



⚡ 겨울철 전기안전 지켜주세요!

글 | 한국전기안전공사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도록 해요.

오래된 전기기기는 사용하기 전 고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선 이외에도 전기기기의 플러그 고장여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기구의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지 않았을 때 그 사이에서 튀는 불꽃이 인화성 물질(먼지 등)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러그가 접속 결함을 일으킨 콘센트를 분리해 보면 콘센트 구멍이 새카맣게 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콘센트와 플러그의 완전 접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콘센트와 플러그를 연결할 때는 접속이 완벽하게 되도록 꽉 눌러주고, 오래되거나 파손된 콘센트는 즉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변에 화재를 부르는 물질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성질을 일컬어 가연성이라고 합니다. 겨울철 전기화재를 불러일으키는 가연성 물질에는 이불, 소파, 커튼, 옷장 등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가연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특히, 전기난로를 오래 사용하면 주변의 가연성 물질의 온도도 같이 높아집니다. 전기난로 등의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변의 가연성 물질과 맞닿으면 화재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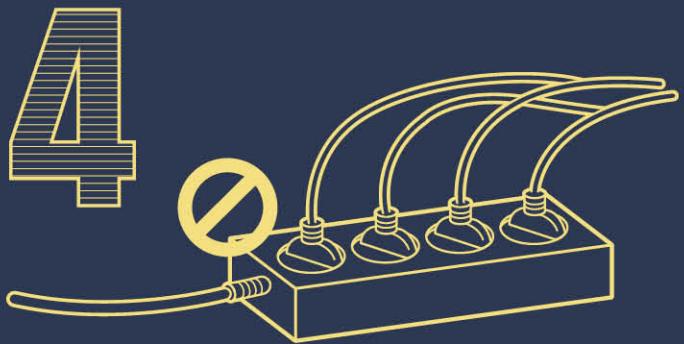
가연성 물질로 인한 전기사고는 전기난로 과열사고만큼이나 겨울철 흔히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리하고 사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전원차단이 가장 중요해요

겨울이 되면 늘 사용하게 되는 난방기구들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플러그 빼는 일을 잊어버리기 일쑤인데요, 전원차단만으로도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나요?

겨울이 되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소식이 있죠. 바로 전기난로나 전기장판 사고인데요. 전기난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외출을 하거나 잠든 사이 화재로 집을 잊게 된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겨울철 난방기구 화재는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전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난방기구 사용 후 어느 정도 추위가 가시게 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다시 추워지면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난방기구 사용법이랍니다.



멀티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아두면 안돼요.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멀티콘센트, 컴퓨터나 전기기기들이 많은 주방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겨울이 되면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히터나 난방기구의 사용이 많아져서 멀티콘센트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멀티콘센트에 난방기구들을 연결하면 안됩니다. 멀티콘센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는데요. 멀티콘센트에 하나의 플러그를 연결하면 온도가 20도가 되지만, 콘센트 구멍마다 플러그를 꽂으면 금방 70도까지 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콘센트에 연결된 전선들이 과열되어 타 들어가게 되고 녹아내린 전선의 구리선이 노출됩니다. 그 후 불꽃이 붙어 화재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멀티콘센트를 구매할 때 과부하 차단이 되는지, 사용하지 않을 때 이 물질이 끼지 않게 커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습기는 콘센트에서 멀리 두세요.

겨울에는 공기 중 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 놓곤 하는데요. 물과 전기는 상극처럼 전기사고의 위험도를 높입니다. 콘센트나 전기기기 주변에 습도가 올라가면 누전과 합선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습기 주변에 콘센트나 전기기기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다음 사용하셔야 합니다.

2019년 한 해 인재원이 사랑한 책

깊어가는 겨울,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책 몇 권을 소개합니다.



90년생이 온다
임홍택 저 / 웨일북 / 2018

'간단, 재미, 정직'이라는 키워드로 90년생들이 이전 세대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시각으로 이들을 대해 조작의 일꾼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며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준다.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 저 / 수오서재 / 2018

작가는 복잡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고요해짐을 통해 내 안의 소망과 진정한 삶의 방향, 가치를 찾는 계기, 억눌렸던 감정과 기억으로부터의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천년의 질문 1~3
조정래 저 / 해냄 / 2019

작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본과 권력에 휘말려 욕망을 키워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내면서 나와 내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만이 권력의 독재를 막을 수 있으며 함께 걷는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믿음을 전하고 있다.



나빌레라
HUN 저 / 위즈덤하우스 / 2017

치매진단을 받고 인생 막바지에 선 일흔 살 주인공과 경제적 어려움, 엄마의 죽음에 힘든 스물 셋 청년이 함께 발레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작가의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스토리와 사실적이며 섬세한 그림, 따뜻한 컬러가 어우러져 감동을 선사한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사랑받은 책

2017-2019년 스테디셀러 소개로
당신의 마음 속 작은 쉼을 선사합니다.



혼불
최명희 저 / 매안 / 2009

1930년대 말, 전라도 남원의 몰락한 양반가 며느리 3대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삶과 인간의 정신세계를 탁월하게 그려낸 책으로, 호남지방의 풍속과 언어를 생생하게 복원해 낸 1990년대 한국문학사 최고의 걸작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저 / 민음사 / 2016

30대를 살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보편적인 일상을 그대로 재현하며, 제도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들이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제약하고 있는지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영화화되어 더 큰 화제를 일으켰다.



만화 객주 (김주영 원작)
이두호 저 / 바다출판사 / 2015

조선 후기 격변기를 살아낸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 순우리말, 은어, 사투리를 잘 살려내 그 당시 삶의 언어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며, 만화가 아닌 한 편의 그림으로 된 한국문화작품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고우영 십팔사략
고우영 저 / 애니북스 / 2012

송대의 증선지라는 인물이 시대별 정사로 꼽히는 18가지 역사서를 간추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든 십팔사략에 작가의 특유의 해학과 유머를 더해 재기발랄하고 생생한 이야기로 대중적 재미와 역사의 이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풀어냈다.



55365 전라북도 원주군 이서면 반교로 150
Tel 063.907.5100 Fax 063.907.6001 www.logodi.go.kr